

지역 맞춤형 일자리정책 성과

순창군, 2025년 추진실적 취업자 1만6400명으로 당초 목표 초과

순창군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고용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기반 강화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순창군이 발표한 '2025년 순창군 일자리정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만6400명으로 집계돼 당초 목표였던 1만6100명을 넘어섰다.

고용률 역시 73.6%를 기록하며 목표 대비 103%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선8기 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순창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순창발효테마파크와 강천힐링스과 운영, 스포츠마케팅 확대가 지역 고용 창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발효테마파크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견인했고, 강천힐링스과는 누적 방문객 55만 명을 기록하며 지역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



순창군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고용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기반 강화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터 운영과 농촌형 인력증개센터, 농기계 작업단 지원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에 집중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현장 실습교육 확대도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338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여성 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정책도 병행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창업지원, 직업

교육훈련, 청년근로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과 생활 여건 개선에도 주력했다.

이들 순창군은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도농인력증개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역시 지속 추진하며 고용의 질적 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순창=이왕림 기자

남원시,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와 문화체험 교류행사

춘향제 기간 한복체험·문화시설 관람 등 경험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 기간(4.3~5.6)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신입생과 관계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남원시 일원에서 문화체험 교류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춘향제에서 신입생들이 남원의 대표 축제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함께 추진 중인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춘향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열기를 함께 나누고, 관련투원 일대에서 공연·체험·먹거리 프로그램과 한복체험 등을 즐기며 남원의 문화관광 자원을 경험하고, 피오리움과 김병중 미술관을 관람하는 등 지역 문화시설을 둘러보며 남원의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류행사는 신입생들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향후 남원에서의 생활과 학업을 고려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에는 2026년 1학기

신입생 171명이 입학해 현재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남원 캠퍼스의 리모델링 완료 시점에 맞춰 남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남원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남원 시민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캠퍼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춘향제 기간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남원시 보건소는 제96회 춘향제 기간(26.4.30.~5.6.)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방문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 의료지원 체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축제 현장에는 보건소를 주축으로 남

원의료원, 남원소방서 총 80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축제장 안전을 위해 남원의료원과 축제장 내 주요 거점에 이동진료소를 공동 운영해 처치, 투약, 건강상담, 의료기관 후송 13건 등 총 417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관내 약사회는 이동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약품과 구급 물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보건소와 비상 연락망을 핫라인으로 구축,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으로 확보와 현장 구조 활동을 통해 긴급 이송 체계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오수면 신기리 일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지역 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른논 썩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른논 썩레질 기술 보급 본격화

임실농기센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연회 성황리 개최

임실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인 '마른논 썩레질' 기술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소영)는 최근, 오수면 신기리 일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지역 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른논 썩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일손이 집중되는 4월부터 6월 사이, 기존의 물 썩레질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노동력 분산 및 작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른논 썩레질'은 논에 물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저 균평기 등 전용 장비를 활용해 논바닥을 평탄하게 고르는 공법이다.

'마른논 썩레질' 공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시간 단축이다.

기존 관행 농업이 썩레질 작업에 약 10~12일이 소요되었다면, 마른논 썩레질은 이를 5~6일 수준으로 약 50%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손이 귀한 농민에게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

며, 작업 단계 축소에 따른 직접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가치 또한 주목할 만하다. 기존 물 썩레질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비점오염)으로 지적되어 왔다.

반면, 마른논 썩레질은 부유물질 농도를 기존 대비 약 98%까지 감축할 수 있어 하천 생태계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농업 분야의 해묵은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3~8%가량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저탄소 농업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시연회 현장에서는 균평기를 활용한 실제 논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농업인들은 기계 조작법과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비 운용의 경제성과 환경적 가치를 직접 확인한 농가들은 도입 의지를 적극 내비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팔도문화탐방 진행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관장 정화성)은 지역 내 저소득 및 홀몸어르신과 복지관 이용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팔도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어르신들은 전라북도 부안과 군산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즐겼다.

탐방 코스는 부안 국립세면금강적박물관 관람, 선유도 유람선 탑승을 통한 고군산군도 해상 절경 감상, 새만



금종협수산시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유도 일대에서는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일상에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의신청 접수

순창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가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순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1만5호로, 전년 대비 주택가격은 평균 0.91% 상승한 반면 주택 수는 58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균형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창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라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다.

순창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의 특성과 가격 산정 적정성, 주변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상담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왕림 기자

임실군 지사면 지사협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임실군 지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협의체 특화사업인 '고추장 담그기 사업' 추진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해당 사업은 위원들이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